

Market Conditions

『Monthly』

MAY 2017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최 성 수 대리 / 010-3144-2110



K2 LOGICS



Contents

01. 해운

02.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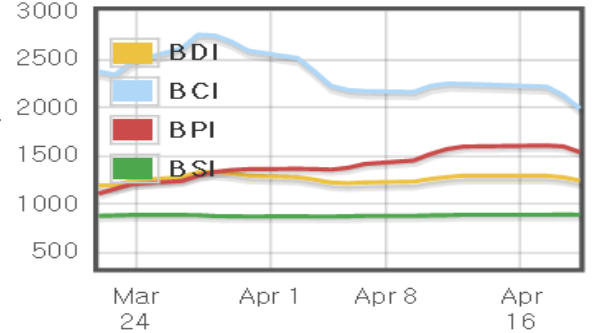
03. 경제

04. 무역

05. 화학

06. 스틸




구 분	시 황		각종 지수 (시황 상세)
해 운	중 국	<p>◆ 한중항로/ 중국 사드보복 직격탄 ‘수출항로 급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항로는 회복세 완연 / 선사들은 한결 같이 물동량이 이달 들어 급감- 자동차 CKD(반제품)와 석유화학제품(레진)이 큰 폭으로 감소- 자동차 물동량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심각- 수입항로는 분위기가 매우 좋은 편이라 한동안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p><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p>	<p>• 국제유가 현황</p> <p>(단위 : \$/ 배럴)</p> <p>WTI 04.20. 50.27 ▼ 0.17(-0.34%)</p> <p>두바이유 04.20. 52.57 ▲ 0.08(+0.15%)</p> <p>브렌트유 04.20. 52.99 ▲ 0.06(+0.11%)</p> <p><출처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WTI, 두바이 런던 국제거래소(ICE) - 브렌트></p>
	중남미 & 북미	<p>◆ 중남미항로/ 남미서안, 공급 조절로 시장 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달 TEU당 500~1000달러 GRI- 서안을 기항하는 선사들이 대대적인 선복감축에 나서면서 운임과 소석률 급증- 한국발 선복 할당량이 줄어든 데다 중국발 화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운임은 고공행진- 서안은 대체로 100%를 넘는 소석률을 기록했으며, 일부 선사는 다음 달로 선적을 이월(롤오버)해야 할 상황 <p><출처 : KSG></p> <p>◆ 북미항로/ ‘운임 약세 흐름’ SC 맞춰 반전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상선 미주서안 서비스 출격- 4월 북미항로는 물동량은 늘어난 반면 해상운임은 뒷걸음질- 한국발 물동량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운임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진해운 미주 서비스를 인수한 SM상선이 서비스를 시작- 6천TEU급 기항지는 광양-부산-롱비치-부산-광양-닝보-상하이-광양 순 <p><출처 : KOTRA></p>	 <p>* SM상선 4/20 첫 취항 (미주노선)</p>
	구 주	<p>◆ 구주항로/ 운임·물동량 강세에 선복잡기 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중순 200~300달러 운임인상-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인해 정시율이 하락 / 선복의 불규칙- 유럽 → 한국향 백홀 (backhaul) 노선도 선복부족현상 <p><출처 : 한국해운신문></p>	<p>해운지수 더보기 ></p> 
	중 동	<p>◆ 중동항로/ 선복감축에 해상운임 모처럼 상승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마단 겨냥 물량 증가로 선복부족 심화→ 선사 동맹은 20%의 선복감축 / 상반기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중량기준을 기존 14톤에서 10톤으로 하향적용 OWC징수인도 정부는 이란 차바하르항의 1단계 건설이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p><출처 : 카고뉴스></p>	


구 분		시 황	특이사항																																								
동향	항공	<div><div><div>◆ 홍콩 T/S화물, 한중 FTA 활용 쉬워졌다</div><div><div>-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완화</div><div>-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후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div><div>- 컨테이너 화물은 적입등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적용</div></div><div><출처:카고뉴스></div></div><div><div>◆ 항공업계, 조인트벤처 등 적극 추진...‘과열경쟁’ 대응</div><div><div>- 경쟁사 등과의 합작투자나 연대를 적극 추진 / 대한항공 & 델타항공</div><div>- 조인트벤처는 두 업체가 한 회사처럼 영업을 같이 한 뒤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비즈니스 형태</div><div>- 저렴한 항공권 판매로 인한 항공사들의 실적하락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div></div></div></div>	<div><div>공항명16년 연간 화물(단위: t)</div><table><tr><td>1 홍콩(HKG)</td><td>4,615,241</td></tr><tr><td>2 댈러스(MEM)</td><td>4,322,071</td></tr><tr><td>3 상하이(PVG)</td><td>3,440,280</td></tr><tr><td>4 인천(ICN)</td><td>2,714,341</td></tr><tr><td>5 두바이(DXB)</td><td>2,592,454</td></tr><tr><td>6 앵커리지(ANC)</td><td>2,542,526</td></tr><tr><td>7 루이스빌(SDF)</td><td>2,437,010</td></tr><tr><td>8 도쿄 나리타(NRT)</td><td>2,165,427</td></tr><tr><td>9 파리 샤를드골(CDG)</td><td>2,135,172</td></tr><tr><td>10 프랑크푸르트(FRA)</td><td>2,113,594</td></tr><tr><td>11 타이베이(TPE)</td><td>2,097,228</td></tr><tr><td>12 마이애미(MIA)</td><td>2,014,205</td></tr><tr><td>13 싱가포르(SIN)</td><td>2,006,300</td></tr><tr><td>14 LA(LAX)</td><td>1,993,308</td></tr><tr><td>15 베이징(PEK)</td><td>1,943,159</td></tr><tr><td>16 도하(DOH)</td><td>1,758,074</td></tr><tr><td>17 암스테르담(AMS)</td><td>1,694,729</td></tr><tr><td>18 광저우(CAN)</td><td>1,652,215</td></tr><tr><td>19 런던 히드로(LHR)</td><td>1,640,400</td></tr><tr><td>20 시카고(ORD)</td><td>1,528,136</td></tr></table></div>	1 홍콩(HKG)	4,615,241	2 댈러스(MEM)	4,322,071	3 상하이(PVG)	3,440,280	4 인천(ICN)	2,714,341	5 두바이(DXB)	2,592,454	6 앵커리지(ANC)	2,542,526	7 루이스빌(SDF)	2,437,010	8 도쿄 나리타(NRT)	2,165,427	9 파리 샤를드골(CDG)	2,135,172	10 프랑크푸르트(FRA)	2,113,594	11 타이베이(TPE)	2,097,228	12 마이애미(MIA)	2,014,205	13 싱가포르(SIN)	2,006,300	14 LA(LAX)	1,993,308	15 베이징(PEK)	1,943,159	16 도하(DOH)	1,758,074	17 암스테르담(AMS)	1,694,729	18 광저우(CAN)	1,652,215	19 런던 히드로(LHR)	1,640,400	20 시카고(ORD)	1,528,136
		1 홍콩(HKG)	4,615,241																																								
2 댈러스(MEM)	4,322,071																																										
3 상하이(PVG)	3,440,280																																										
4 인천(ICN)	2,714,341																																										
5 두바이(DXB)	2,592,454																																										
6 앵커리지(ANC)	2,542,526																																										
7 루이스빌(SDF)	2,437,010																																										
8 도쿄 나리타(NRT)	2,165,427																																										
9 파리 샤를드골(CDG)	2,135,172																																										
10 프랑크푸르트(FRA)	2,113,594																																										
11 타이베이(TPE)	2,097,228																																										
12 마이애미(MIA)	2,014,205																																										
13 싱가포르(SIN)	2,006,300																																										
14 LA(LAX)	1,993,308																																										
15 베이징(PEK)	1,943,159																																										
16 도하(DOH)	1,758,074																																										
17 암스테르담(AMS)	1,694,729																																										
18 광저우(CAN)	1,652,215																																										
19 런던 히드로(LHR)	1,640,400																																										
20 시카고(ORD)	1,528,136																																										
ISSUE	항공	<div><div>◆ 中 사드보복 '통관 절차 강화'...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div><div><div>- 수출기업 기본적인 서류·인증 등 철저히 준비해야</div><div>- 3월 중국발 항공화물 감소세 뚜렷 / 중국 내 일부 세관 여전히 통관 ‘수월’</div></div><div>*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의 조치로 자국 여행사에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항공분야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화물도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IT 수요 호조에 따라 항공 수출입 물동량은 확대되는 있지만, 3월 기준 중국의 항공화물 물동량은 6만2376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1%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화물은 10.1% 증가한 38만톤을 기록했다.</div><div><div>주요 국가별 항공화물 물동량 변화 추이</div><table><tr><th>구분</th><th>일본</th><th>중국</th><th>동남아</th><th>미주</th><th>유럽</th><th>대양주</th><th>기타</th></tr><tr><td>'16년 3월</td><td>41,030</td><td>67,170</td><td>93,043</td><td>56,601</td><td>46,120</td><td>5,210</td><td>7,705</td></tr><tr><td>'17년 3월</td><td>48,399</td><td>62,376</td><td>110,603</td><td>61,509</td><td>55,221</td><td>5,737</td><td>7,813</td></tr><tr><td>전년대비(%)</td><td>18.0</td><td>-7.1</td><td>18.9</td><td>8.7</td><td>19.7</td><td>10.1</td><td>1.4</td></tr></table><div>자료 : 국토부 (단위 : 톤)</div></div></div>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6년 3월	41,030	67,170	93,043	56,601	46,120	5,210	7,705	'17년 3월	48,399	62,376	110,603	61,509	55,221	5,737	7,813	전년대비(%)	18.0	-7.1	18.9	8.7	19.7	10.1	1.4	<div><div>중국 수출시 대표적인 인허가 인증서 종류</div><div><div>상품검사증</div><div>기계·전기 수입허가증</div><div>중고설비 비안등기증</div><div>식품위생허가증</div><div>CCC강제인증서</div><div>수입허가증</div><div>전략물자허가증</div><div>특종설비허가증</div></div><div><출처 : 카고프레스></div></div>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6년 3월	41,030	67,170	93,043	56,601	46,120	5,210	7,705																																				
'17년 3월	48,399	62,376	110,603	61,509	55,221	5,737	7,813																																				
전년대비(%)	18.0	-7.1	18.9	8.7	19.7	10.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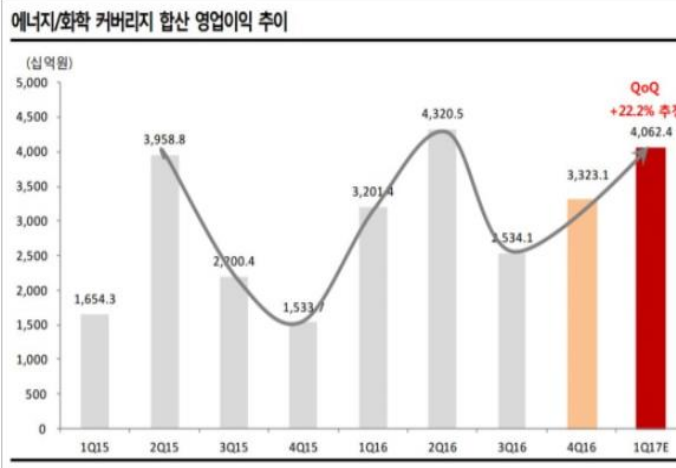
▲중국 수입시 대표적인 인허가 인증서 종류 (자료 : 신화국제물류유통공사)

▲중국 수입시 대표적인 인허가 인증서 종류 (자료 : 신화국제물류유통공사)



구 분	내 용
산업 & 경 제	<p>◆ 중남미를 주목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중남미, 신보호주의 풍랑 같이 넘을 파트너로 부상" - 내수중심의 전형적 폐쇄 경제였던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는 최근 시장 친화적 개혁에 속도 - 2015년 아르헨티나, 2016년 브라질에서 우파성향 대통령이 등장해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남미의 경제는 올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KOTRA는 기업환경개선과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중남미를 아세안, 인도 등과 맞먹는 우리의 시장다변화 타겟으로 평가했다. KOTRA는 기업환경개선과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중남미를 아세안, 인도 등과 맞먹는 우리의 시장다변화 타겟으로 평가했다. 코트라는 전방위적으로 지원 할 계획.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TRA></p> <p>◆ 잇단 미국 반덤핑관세에 철강업계 긴장감 '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제품 수입규제 속 다음달까지 후판, 강관에 반덤핑관세 결정 ·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철강 제품 18개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달말과 다음달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후판, 강관에 대한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율을 정할 예정 <p>◆ KOTRA "세계는 4차산업 대비 중, 우리도 서둘러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트라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다양한 산업용, 가정용 로봇(주요국) ▲음악을 연주하는 테이블(일본) ▲농업용 드론(일본) ▲인공지능 의료진단 시스템(중국)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재난 예측 시스템(영국) ▲인간의 장기를 제작하는 3D 프린터(호주) ▲무인 광물 채굴 트럭(호주) 등 다양한 용도의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빅데이터 제품 등 이미 상용화된 110여개의 첨단 융합산업 제품을 소개했다.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주간무역></p>

구 분	내 용
무 역	<p>◆ 베트남 시장이 변한다... 고급제품 선호 늘어 → 전자제품·화장품·의류에서 두드러져</p> <p>베트남 소비자들의 고급 제품 선호현상은 가치소비로의 전환으로도 해석된다. 인터넷 보급 확산과 사회공유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가성비 좋은 제품의 정보 공유가 쉬워진 점도 이런 소비 트렌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p> <p>베트남에서 나타나는 고급 제품 수요 증가의 주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주간무역></p> <p>◆ 수출 장밋빛 전망 잇달아</p> <p>KDI·KOTRA·KIEP “경기순환 측면에서 회복될 것... 수출선행지수도 긍정 신호”</p> <p>세계교역량이 개선되고 있으며, OECD 선행지수도 기준치(100)를 회복함에 따라 앞으로도 물량 기준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p> <p>지역별로는 북미, 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CIS 및 일본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미(67.1)는 고용시장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TRA></p> <div data-bbox="1280 464 1860 828"> </div> <p style="font-size: small;">▲수출이 5달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국면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물량기준 수출도 증가세다. 울주 중 국 산동성 칭다오항의 한 항구에서 하역작업이 진행중이다. (사진=AP/뉴시스)</p> <div data-bbox="389 842 1114 1249"> </div> <p style="text-align: center;">* 호주 무역시장 *</p> <p>호주 해상운송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시장이 88% 차지</p> <p>호주 물류 50% 도로 운송, 넓은 면적으로 물류비용 높아</p> <p>넓은 국토 면적으로 물류 이동 수요가 많고 운송수단이 도로, 항공, 철도 등으로 다양함</p> <p>호주 전체 물동량의 약 80%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멜버른(빅토리아주), 브리즈번(퀸즐랜드주) 등 동부 3개 도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p> <p>이는 내륙 운송 물동량을 포함, 일반 제조 및 산업용 기기, 생활소비재, 농축산물 등 호주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국제 교역이 주요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무역협회></p>

구 분	내 용
화 학	<p>◆ 한국 정유·화학 세계시장 주름잡다...역대 최대 판매</p> <p>전년비 석유제품 수출액 68% ↑, 석유화학제품 38% ↑</p> <p>여전히 중국 수출 강세 속 FTA 영향 미국·베트남 증가</p> <p>→ 석유제품 수출은 중국이 가장 많았지만, 호주 미국 베트남 등 비교적 골고루 이뤄졌다.</p> <p>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호조로 정유 및 화학업계 1분기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유 및 화학업계의 호실적은 최소 2,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p> <p>◆ 화학업계 호황, 2020년까지 이어질까?</p> <p>올해 하반기 미국 ECC 500만톤 이상 증설...공급과잉 우려</p> <p>미국 경기 개선·인도 인프라 투자 확대·중국 PE 수요 견조 긍정적</p> <p>→ "미국 ECC 증설 영향으로 공급과잉의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을 필두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프라 투자 등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p> <p>"2020년까지도 크게 업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EBN 화학뉴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KOTRA></p>
	 <p>◆ 국제유가 하락, 미 생산량 20개월만에 최대...나프타 하락</p> <p>미 원유생산 하루 925만배럴, 9주연속 증가</p> <p>산유국 감산 연장 조짐, 드라이빙 시즌 도래</p> <p>석유공사 관계자는 "미 석유재고 감소 가능성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지지 등은 국제유가를 다시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라며 "미 원유재고와 중간유분 등 제품재고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 정제가동률도 드라이빙 시즌 도래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는 등 향후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상했다.</p> <p>또한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5월 25일 OPEC 총회를 앞두고, 감산 연장에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감산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EBN 화학뉴스></p>



▲ [자료=SK증권]

구 분	내 용																																																							
스틸	<div> <div> <p>◆ 美보호무역 러시...다시 먹구름 드리우는 한국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제한' 철강 우선 타깃 잡은 트럼프...화학 등 전방위로 확대 전망 •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 추세...보호무역 조치 반영 시 타격 커질 듯 <p>- 우리 철강업체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작년 기준 9만2504M/T(4560만 달러)로 반덤핑 조사국 중 우크라이나(5502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p> <p>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꼽히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작년 기준 232억 달러)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미국의 세일가스, 석탄, 항공기 수입 등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EBN스틸></p> </div> <div>  </div> </div> <div> <div> <p>◆ 멕시코, 한국 철강제품 잠정관세 6개월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10월까지 철강 관련 제품에 15% 관세 부과 • 멕시코 내 생산량 소폭 상승... 한국·중국산 수입 감소 <p>멕시코 철강업체인 탐사(TAMSA)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청원을 신청, 2016년 12월 15일에 조사가 개시됐다. 오는 20일경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016년 12월 15일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해서도 35.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혹은 특정 상품의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자료를 마련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멕시코 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 및 제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고급 냉연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내 생산업체들에 비해, 한국 업체들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 EBN스틸></p> </div> <div>  </div> </div>																																																							
	<div> <div> <p>국내 주요 품목가격 ></p> <table> <tr> <th>구분</th><th>공장도</th><th>유통가</th><th>수입유통</th></tr> <tr> <td>열연</td><td>1,060</td><td>750</td><td>620</td></tr> <tr> <td>후판</td><td>1,060</td><td>620</td><td>530</td></tr> <tr> <td>냉연</td><td>1,180</td><td>770</td><td>760</td></tr> <tr> <td>철근</td><td>635</td><td>630</td><td>580</td></tr> <tr> <td>H형강</td><td>840</td><td>710</td><td>660</td></tr> <tr> <td>STS CR</td><td>-</td><td>2,650</td><td>2,450</td></tr> <tr> <td>구조관</td><td>950</td><td>713</td><td>-</td></tr> </table> <p>* 수도권 1차유통, 도착도기준 (원/kg)</p> </div> <div> <p>국내 철스크랩 가격 ></p> <table> <tr> <th>구분</th><th>경인</th><th>영남</th><th>평균</th></tr> <tr> <td>생철A</td><td>280</td><td>276</td><td>278</td></tr> <tr> <td>중량A</td><td>261</td><td>265</td><td>263</td></tr> <tr> <td>경량A</td><td>247</td><td>245</td><td>246</td></tr> <tr> <td>선반A</td><td>251</td><td>245</td><td>248</td></tr> <tr> <td>선반C</td><td>239</td><td>230</td><td>235</td></tr> </table> <p>* 경인/영남 구좌업체 매입평균 (원/kg)</p> </div> </div>	구분	공장도	유통가	수입유통	열연	1,060	750	620	후판	1,060	620	530	냉연	1,180	770	760	철근	635	630	580	H형강	840	710	660	STS CR	-	2,650	2,450	구조관	950	713	-	구분	경인	영남	평균	생철A	280	276	278	중량A	261	265	263	경량A	247	245	246	선반A	251	245	248	선반C	239	230
구분	공장도	유통가	수입유통																																																					
열연	1,060	750	620																																																					
후판	1,060	620	530																																																					
냉연	1,180	770	760																																																					
철근	635	630	580																																																					
H형강	840	710	660																																																					
STS CR	-	2,650	2,450																																																					
구조관	950	713	-																																																					
구분	경인	영남	평균																																																					
생철A	280	276	278																																																					
중량A	261	265	263																																																					
경량A	247	245	246																																																					
선반A	251	245	248																																																					
선반C	239	230	235																																																					

감사합니다

